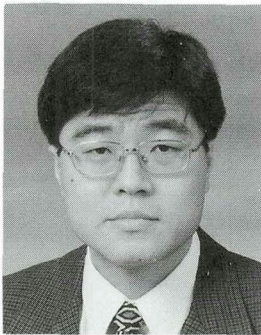


실업자의 심리상태와 행태

1. 서론

실업은 실직자 개인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뿐 아니라, 그 개인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가족과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실업은 실직자의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가출, 자녀·노인의 유기와 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실업으로 인해 그 개인들의 심리상태가 불안해져서 사회에 대한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를 시행하던 당시에 실업자였던 응답자들의 심리상태와 행태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李 善 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2. 실업자의 심리상태와 행태

가. 실업자의 심리상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업자들의 전반적인 심리

상태는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에 따르면,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이 안정이 안된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난다', '매사가 힘들다', '허무한 느낌이다'의 4항목에서 50% 이상의 실업자들이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였다. 게다가 상당히 심각한 심리상태를 보여주는 '무엇을 때려 부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죽고 싶은 기분이다'의 항목에 대해서도 전자는 '그렇다'는 17.1%, '매우 그렇다'는 4.9%나 되고 있으며, 후자는 각각 14.4%, 5.1%를 나타내고 있다. 실업자 5명 중에 1명이 '무엇을 때려 부수고 싶은 충동'을 갖고 있으며, '죽고 싶은 기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시급하게 상담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실업자 중에 상당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12개 항목을 실업자의 심리상태를 일반적인 수준에서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우울, 불안, 적대감의 하위 척도로 재구성하였다.¹⁾ 이를 위해서 <표 1>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실업자의 심리상태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업자 5명 중에 1명이
'무엇을 때려 부수고
싶은 충동'을 갖고
있으며, '죽고 싶은
기분'을 보이고 있다.

표 1. 실업자의 심리상태

(단위: %)

심리상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¹⁾
불안	① 공포감에 휩싸이는 때가 있다	12.9	25.7	18.9	34.2	8.3	3.17
	②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이 안정이 안된다	6.0	13.0	14.9	52.6	13.5	
	③ 가슴이 두근두근거릴 때가 있다	10.5	24.5	17.7	38.2	9.1	
	④ 안절부절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	11.5	27.9	17.6	33.0	9.9	
적대감	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난다	6.4	18.0	15.5	46.4	13.7	2.88
	⑥ 무엇을 때려 부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21.8	40.3	16.0	17.1	4.9	
	⑦ 자신도 모르게 울화가 치민다	11.2	23.9	17.0	38.1	9.8	
	⑧ 잘 다툰다	19.3	39.3	15.8	20.7	4.8	
우울	⑨ 매사가 힘들다	7.0	14.8	15.7	45.0	17.5	3.06
	⑩ 허무한 느낌이다	7.6	15.3	16.5	45.9	14.6	
	⑪ 외롭다	13.7	26.9	18.7	30.1	10.6	
	⑫ 죽고 싶은 기분이다	31.9	35.5	13.1	14.4	5.1	

주: 1)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그저 그렇다'는 3점, '그렇다'는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1999.

각 문항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그저 그렇다’는 3점, ‘그렇다’는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을 배정하고, ①~④의 문항을 불안, ⑤~⑧의 문항을 적대감, ⑨~⑫의 문항을 우울로 재구성하여, 우울, 불안, 적대감의 평균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불안은 3.17, 적대감은 2.88, 우울은 3.06으로 나타났다. 각 척도에서 평균 3.5 이상인 실업자는 불안에서 36.7%, 적대감에서 22.1%, 우울에서는 28.3%로 나타났다.

실업자들의 심리상태를 가구주 여부, 교육수준, 실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선, 가구주 여부에 따라서 가구주인 실업자들은 부양할 가족이 있기 때문에 비가구주인 실업자들보다 심리상태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표 2>에서 보면, ‘무엇을 때려 부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와 ‘죽고 싶은 기분이다’는 항목에 대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이 비가구주의 경우는 각각 18.3%, 14.1%인 반면, 가구주의 경우는 각각 25.3%, 24.6%로 나타났다.

표 2. 가구주 여부에 따른 구체적 심리상태¹⁾

(단위: %)

심리상태	비가구주	가구주	χ^2
⑥ 무엇을 때려 부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18.3	25.3	31.7***
⑦ 자신도 모르게 울화가 치민다	42.2	53.1	49.3***
⑫ 죽고 싶은 기분이다	14.1	24.6	68.4***

주: 1) 각 문항에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대한 응답을 합한 비율임.

*** p<0.001에서 유의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1999.

가구주의 경우, 불안, 적대감, 우울의 척도에서도 심리상태가 비가구주보다 나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에서는 불안, 적대감, 우울에서 평균 3.5점 이상인 실업자의 비율을 보여 주고 있는데 불안, 적대감, 우울의 모든 측면에서 가구주가 비가구주보다 심리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위안이 되기보다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기 때문에 더욱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1) 조희선, 「모자가족과 부부가족의 가족 스트레스에 관한 비교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991.

표 3. 가구주 여부에 따른 불안, 적대감, 우울¹⁾

(단위: %)

심리상태	비가구주	가구주	χ^2
불안	30.9	42.1	75.0***
적대감	18.5	25.4	35.7***
우울	20.8	35.2	108.6***

주: 1) 평균 3.5점 이상의 비율임.

*** p<0.001에서 유의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1999.

다음으로 교육수준이 심리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불안, 적대감, 우울의 모든 심리상태가 더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실업자의 49.4%가 불안 3.5점 이상이며, 23.9%가 적대감 3.5점 이상, 38.6%가 우울 3.5점 이상으로 응답하였다. 반면에,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실업자들 중에는 27.5%만이 불안 3.5점 이상, 16.4%가 적대감 3.5점 이상, 21.4%가 우울 3.5점 이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실업의 상태에 있지만 교육수준이 높은 실업자일수록 재취업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업자의 심리상태는 가구주인 실업자가 비가구주인 실업자보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실업기간이 길어질수록 불안, 적대감, 우울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교육수준에 따른 실업자의 심리상태¹⁾

(단위: %)

심리상태	중졸 이하	고졸 이하	전문대 이상	χ^2
불안	49.4	33.3	27.5	141.5***
적대감	23.9	23.4	16.4	39.3***
우울	38.6	25.2	21.4	137.5***

주: 1) 평균 3.5점 이상의 비율임.

*** p<0.001에서 유의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1999.

실업자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또 다른 요인은 실업기간이다. 실업기간이 증가하면 생활이 어려워져서 실업자의 심리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5>는 실업기간에 따른 심리상태로,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실업자보다 6개월 이상인 실업자들의 심리상태가 더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실업자의 34.0%가 3.5점 이상의 불안을 보이고, 20.0%가 3.5점 이상의 적대감을 보이며, 25.6%가 3.5점 이상의 우울을 보이는 반면, 실업기간이 6개월~1년 미만인 실업자는 41.6%가 3.5점 이상의 불안을, 24.1%가 3.5점 이상의 적대감을, 31.7%가 3.5점 이상의 우울을 보여 세 측면에서 모두 악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실업기간이 1년 이상인 실업자들은 실업기간 6개월~1년 미만인 실업자와 비교할 때, 불안의 정도는 약간 감소하였지만, 적대감과 우울의 정도는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5. 실업기간에 따른 심리상태¹⁾

(단위: %)

심리상태	6개월 미만	6개월~1년	1년 이상	χ^2
불안	34.0	41.6	38.0	24.0**
적대감	20.0	24.1	27.7	21.3**
우울	25.6	31.7	32.3	26.4***

주: 1) 평균 3.5점 이상의 비율임.

** p<0.01, *** p<0.001에서 유의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1999.

실업자의 심리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상담이다. 본 조사에서 심리적 문제 또는 가족 문제로 상담을 받은 실업자는 전체 실업자의 1.8%인 58명에 불과하였다. 이들이 상담을 받은 문제 중에 가장 많은 실업자들이 상담을 한 문제는 실업으로 인한 스트레스(33.1%), 경제적 어려움(28.5%), 취업문제(19.4%), 부부갈등·이혼·별거(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이혼·별거 등의 심리문제가 42.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상담을 받은 기관을 보면 기타(33.9%), 병원(24.7%), 종교기관(17.2%), 사회복지관(12.9%), 전문상담기관(11.3%)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을 받은 실업자의 수는 대단히 적지만 상담을 받기를 원하는 실업자는 12.7%에 달했다. 따라서, 현재 상담을 받고 싶은 실업자들이 많지만 제대

로 상담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담을 받고 싶은 실업자들이 상담받기를 원하는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42.3%), 취업문제(23.4%), 실업으로 인한 스트레스(21.9%)로 나타났으며, 부부의 갈등(4.2%)이나 자녀 비행의 문제(1.6%), 가족내 폭력(0.8%) 등의 문제로 상담을 하고 싶은 실업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때, 실업자들의 상담 욕구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며, 스트레스 문제도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상담받기를 원하는 기관을 보면, 전문상담기관(44.0%), 사회복지관(28.6%), 종교기관(10.1%), 기타(9.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담받은 기관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병원은 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실업자들은 상담을 하면서 경제적 부담이 되는 병원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업자들이 상담을 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는 상담기관을 많이 만들어서 상담전문가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로 상담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심리상담뿐 아니라 취업상담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실업자의 행태

실업으로 인해 실업자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미쳐 실업자의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표 6>에 따르면, 실업자들은 앞으로 취하게 될 행태에 있어서 아직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었다. 우선, '전망이 밝은 직종의 직업훈련을 받을 것'이라는 항목에 대해 실업자는 50.8%가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다. 그러나 '예전과 보수가 비슷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37.4%가 긍정적인 대답을 한 반면 42.1%가 부정적인 대답을 하여, 부정적인 대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업자들이 예전과 비슷한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실업자들이 예전과 비슷한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는 있으나 '열심히 노력하면 예전의 생활수준을 조만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실업자가 64.0%로,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었다.

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예전보다 못한 일거리라도 어떻게든 구해야 한다’는 항목에서는 실업자의 76.8%가 그렇다고 응답함으로써 비록 임금이나 다른 조건이 이전보다 못한 일자리라도 구해서 생계를 이끌어가려는 의지가 엿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열심히 노력하면 예전의 생활수준을 조만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실업자가 64.0%로,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실업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실업자들이 개인적으로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를 보이는 반면, 대부분의 실업자들은 사회적인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실업자들의 시위가 있으면 참여하겠다’는 항목에 대해 대부분의 실업자들(73.5%)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 항목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실업자가 17.2%로 상당히 높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6. 실업자가 취할 행동

(단위: %)

실업자가 취할 행동	아니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① 전망이 밝은 직종의 직업훈련을 받을 것이다	38.3	10.9	50.8
② 예전과 보수가 비슷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42.1	20.5	37.4
③ 예전보다 못한 일거리라도 어떻게든 구해야 한다	12.0	11.2	76.8
④ 실업자들의 시위가 있으면 참여하겠다	73.5	9.3	17.2
⑤ 열심히 노력하면 예전의 생활수준을 조만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17.5	18.5	64.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1999.

3. 정책 대안

실업자의 심리상태를 보면 대단히 불안한 상태에 있으며, 그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경제난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각종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가족의 기능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는 가족에 대한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화된 사회복지적 접근이 필요하다.”²⁾ 여기에서 사회복지적 접근이란 비

경제적인 보장을 말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의미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개별적으로 개인이나 가족이 처한 생활의 어려움에 대응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실업자들에게는 그 가족의 생계를 지원하면서 그들이 사회적 분노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가족의 해체가 증가하고, 범죄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미 살인사건, 강도, 절도 등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범죄문제는 경제위기가 해소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이지만, 실업자들의 분노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사회정서적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상당히 예방될 수 있을 것이다.³⁾

현재 정부의 실업대책은 크게 고용안정대책과 생활안정대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대책만으로는 실업자들의 심리문제를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의 심리문제를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실업자들에게 상담을 포함한 사회서비스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는 사회계층의 양극화로 인해 “약해지고 있는 중산층을 강화시키는 데에도 필수적”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직자들의 사회심리적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구직등록시에 실직자의 심리를 상담할 수 있는 상담전문가를 배치하여, 실직자의 심리상태와 가족의 문제 및 욕구를 파악하도록 한다. 특히, 실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아동학대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실직자 자녀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1999년에 가정폭력상담사업에 전문대 졸업 이상의

실직자들의 사회심리적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의 고용 및 생활안정대책 외에도 상담을 포함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2) 정무성, 「실직자와 그 가족의 위기극복을 위한 가족복지정책 방향」, 『실직자 가족의 위기와 사회복지』,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3회 학술세미나, 1998, p.10.

3) Ibid.


4) 조홍식, 「실직자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실직자 가족의 위기와 사회복지』,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3회 학술세미나, 1998, p.52.

여성을 상담원으로 채용할 계획으로 있으나, 상담사업의 전문성을 고려한다면 상담전문가를 배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업상태에 있는 사회복지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관에 실직자와 그 가족들의 심리를 상담할 수 있는 상담전문가를 배치한다. 이미 서울에만 80여 개에 달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으며, 이런 복지관을 통해서 실업자를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종교기관의 종교인들에게 실직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상담을 해주도록 요청한다.

넷째, 실업자를 위한 상담서비스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실업자들을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할 것이다. 조성희(1998)는 대다수 실직자들이 두려움과 수치심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회피하는 경향이 강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직자들을 찾을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각 지역의 어린이집, 놀이방, 각급 학교를 통해서 실직한 실업자들을 찾아 나설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실직자와 그 가족들이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적으로 불편함을 느껴서 병원을 찾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료팀과 연계하여 실직자들을 찾아 나설 수 있을 것이다.⁵⁾

다섯째, 실직자들에게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시켜 주기 위해 자조집단서비스를 제공한다.⁶⁾ 직장은 단순히 생계유지의 수단일 뿐 아니라 사회관계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실직자들은 생계유지의 수단을 상실하게 될 뿐 아니라 사회관계망을 잃고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상실하게 된다. 생활안정대책이 실직자에게 제공하는 생계유지의 대안이 된다면, 자조집단서비스는 실직자에게 사회적 역할을 보완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조직가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조성희, 「실업이 실직자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 및 사회복지실천의 방향」, 『IMF 경제위기와 사회복지의 대응』,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학술세미나, 1998, pp.174~199.

6) ibid.